TURTLES — HAPPY TOGETHER 1967

인 생 은 거 북 이 처 럼

터 틀 즈 — 해 피 투 게 더

WRITER

심재승 음악칼럼니스트
前 교통방송 DJ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올해는 더 좋은 일이 펼쳐지기를 새해 첫날 기원했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그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새해를 맞았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절망 속에 그 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2023년을 전망하는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희망보다는 위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떠올렸다. 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여,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미 그대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잘 견뎌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내일에 긍정적 메시지를 던져 보자!

필자가 이번 호에 추천할 팝송은 터틀즈(Turtles)의 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다. '비틀즈'가 아니라, '터틀즈'다! 그룹명만 보면, 당시 전 세계 팝음악의 황제로 군림 중이던 비틀즈의 아류작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터틀즈 나름의 음악성은 인정할 만하다. 비틀즈로 알든 터틀즈로 알든, 명실공히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임은 분명하다.

이 곡이 발표된 1967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3개월이면 끝날 것 같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소모전이 되어 가고 있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만은 차츰 커져 갔다. 그에 발맞춰 평화를 위한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바로, 비폭력 저항운동인 '플라워 무브먼트(Flower Movement)'다. 많은 사람들이 총 대신 꽃을 들고 평화와 자유를 외치면서 평화를 향한 움직임은 사회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대급부적 현상에 따라 새로운 음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듯하다. 어느 한 곳에 물이 차면 다른 곳은 빠지듯, 혼돈스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악의 꽃은 오히려 활짝 피어났으니 말이다.

1967년 음악계에서는 일명 사이키델릭(몽환적, 영적인) 사운드가 플라워 무브먼트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청년 대중문화를 파고 들었다. 사이키델릭 사운드의 느낌은 영화 '해피 투게더'나 '포레스트 검프'에 잘 투영되어 있다.

1967년은 제니스 조플린, 도어스, 지미 핸드릭스, 제퍼슨 에어플레인 등 엄청난 스타들이 활약한 시기였다. 더 나아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반으로 칭송받는 비틀즈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가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세상은 어지러워도 음악, 문화적으로는 최고의 시대였던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터틀즈도 1967년 당시 나름 잘나가는 그룹이었다. '해피 투게더' 역시 그해 빌보드 1위를 장식했던 곡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빌보드 1위는 곧 전 세계에서 음악으로 1등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and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I can't see me lovin'
nobody but you
For all my life

When you're with me,
baby the skies'll be blue
For all my life

이 곡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다소 진부한 주제일 수 있으나, 누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분야가 바로 문화, 예술, 음악이다. '당신과 함께라면 난 행복할 거야'란 내용이 곡의 주요 줄거리지만, 여타 사랑 노래와 달리 도입부는 담담한 드럼 비트와 마이너 코드의 멜로디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곡의 후렴은 담담한 에너지를 드럼 스네어 16비트로 끌어올리고 메이저 코드로 멜로디가 변하며, 'Happy together. 다 같이 행복할 거야'라며 곡의 에너지를 쏟아낸다.

터틀즈는 이 곡에서 거장 비틀즈 곡의 특징 중 하나인 팝음악과 다양한 클래식 악기 접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를 사용하는 등 오케스트라적 요소가 엿보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절에서 나오는 멜로디 라인의 목관악기 소리를 좋아한다. 듣고 있으면 목관악기 특유의 서정적이며 쓸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터틀즈는 원 히트 원더 그룹이다. 다시 말해 해피투게더 이후 1위를 차지한 곡은 없다. 1970년 결국 해체의 수순을 밟았으나, 2010년 깜짝 재결성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터틀즈를 보면, 인생은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님을 느낀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시간을 딛고 나아가는 것이다.

행복과 사랑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곡 '해피투게더'.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행동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리라. 계묘년에는 고양 시민 모두가 행복을 쟁취하길 바란다. Happy Together~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